

# ‘광장의 정치’는 축제였다

5·18 광장 ‘박근혜 퇴진’ 넘어 각계 목소리 분출구  
“도청 5월 흔적 복원” “비정규직 권리 찾자” 목소리  
성금 늘고 종이컵 기부 10만개…상인은 음료 할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광주에 ‘광장 정치’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 초기만 해도 집회 무대인 광주 금남로는 ‘박근혜 퇴진 촉구’의 장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의 분출구로 변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거듭되면서 주말이면 금남로로 향하는 시민들은 단순한 집회 참여를 넘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광장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5일 개최된 제1차 박근혜 퇴진 광주시국 촛불대회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만 국한됐다. 하지만, 촛불집회 횃수가 거듭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시민들에게서는 ‘대통령 퇴진’을 넘어선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

고 있다.

지난 26일 열렸던 제 5차 촛불집회는 본격적인 광장정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을 앞에 두고 무대에 오른 5·18 유족들은 “옛 전남도청을 보존하고 5·18 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고교생 시절이던 1980년 5월 계엄군에게 희생 당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77)씨는 “아들이 계엄군 총칼에 맞아 숨진 곳이란 단서도 보이지 않는 도청 건물입니다. 계엄군의 만행을 기억하도록 도청 건물에 새겨진 총탄 흔적을 복원하고 역사적 장소에 걸맞게 5·18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한연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노조가 꾸러지기 전 저희는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하야하소’ 황소도 한몫했소

풍자·패러디 넘친 광화문 축제  
‘하야하그라’ ‘최계바라’ 깃발…소 2마리 집회 동원  
조계종 스님 시위 동참…제거 쉬운 꽃스티커 등장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5주째 열린 26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는 풍자와 패러디가 넘치는 시민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발한 깃발과 손 피켓 등을 통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풍자하거나 그들의 발언을 패러디해 무거운 분위기로 일관될 수 있는 집회 분위기를 밝게 했다.

‘박근혜야 새누리해제 예술행동단’ 맞짱’ 소속 배우 김한봉희(34)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얹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최씨 모습을 연출, 집회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 옆으로는 박 대통령 가면을 쓴 채 포

송출에 목인 사람도 함께했다.

말(馬)머리 가면을 뒤집어쓴 공연기획사 ‘최계바라’ 직원은 자신의 몸에 ‘유라개’라는 종이를 붙이어서 “1588-순실순실 OK! 대리연설”이라는 대리운전 광고를 패러디 피켓을 들었다.

1~4차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깃발도 많았다. 청와대가 예산으로 받기 부진제 비아그라를 대량으로 산 것을 비꼬아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 모양을 그려 넣고 ‘나만 비아그라 없어’ ‘하야하그라’ 등이라고 쓴 깃발이 여럿 등장했다.

한 농민이 소를 끌고 오는 드문 광경도 이날 집회에서 펼쳐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중로구 탑골공원에서 목격된 소 2마

리는 붉은 글씨로 ‘하야하그라 박근혜’라고 흰 천을 등에 두르고 유유히 이날 서울 도심 집회를 유람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 등 100여명은 시민행진 때 큰 북을 치는 소리에 맞춰 삼정동 차벽으로 물러가는 등 종교계도 이색 평화시위에 동참했다.

최근 집회에서 계속된 ‘경찰 버스에 꽃스티커 붙이기’ 퍼포먼스도 여김없이 이어졌다. 나중에 의경들이 쉽사리 제거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수 스티커가 주조를 이뤘다.

외신들은 여전히 평화로운 집회가 이어졌다는 점을 상세히 다뤘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 국민이 평화롭고 축제 형태로 집회의 새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BBC 방송은 “농부, 승려, 대학생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며 ‘트래퍼 시위’가 무산된 가운데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최씨 언니 최순득, 연예인과 매일 골프…라디오 선곡 지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둘째 언니인 최순득 씨가 유명 연예인이나 경찰 고위직 간부 부인 등과 수시로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쌓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에는 최씨가 라디오 음악프로그램

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곡을 지시한 정황 등도 담겨 있어, 방송기에도 최씨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가 고위 경찰 간부에게 봉투를 전달했으며, 이 간부가 다른 고위직으로

옮긴 뒤 최씨를 빌딩 사무실로 찾아온 일도 있었다는 내용도 증언에 포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27일 최순득 씨의 집에서 1997년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2016년 윤동주 서시 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특별상 최연홍 시인, 윤동주 서시 문학상 이경림 시인,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김미희 시인.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제1회 윤동주 서시 문학상’ 시상식 열려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제정  
이경림 시인 상금 1천만원  
해외작가상에 김미희 시인

최연홍 시인 ‘해외특별상’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제정한 ‘2016 제1회 윤동주 서시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수상자와 가족, 시산맥사회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윤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자인 이경림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또한 윤동주 서

시 문학상과 함께 제정된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수상자인 김미희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특별상 수상자인 최연홍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정후식 편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은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올해 ‘윤동주 서시 문학상’을 공동으로 제정했다”며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정신과 가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시산맥 발행인인 문정영 윤동주 서시 문학상 대표는 “윤동주 시인의 이름을 걸고 수여하는 상은 작품뿐만 아니라 시인이 가진 순수한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문학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평판을 보고 선정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식전행사로 윤동주 시인 추모 헌다 헌화, 윤동주 시극 ‘새벽을 기다리며’가 펼쳐졌으며, 한국화가 이향 화백의 서시 퍼포먼스, 웃음꽃필하모니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시산맥사회가 주관한 신인상 등단패 증정식도 함께 열려 전해진(201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시인, 최지원(제11회 최지원신인문학상 당선) 시인, 강주(제1회 정남진신인문학상 당선) 시인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또한 시산맥작품상과 ‘시어 눈을 감아라’에 선정된 최정란 시인과 안태현 시인에게도 각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과 만났다”

차은택 진술 “우병우 장모·최순실과 골프도 사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국기소)씨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가 변호인을 통해 최씨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최순실 씨 등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범무법인 동인)는 27일 오후 차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4년 6~7월께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김 비서실장과 김 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문화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최씨가 차씨에게 “어디론가 찾아가 보이라”고 해서 지시에 따랐고, 그 장소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이다.

여기서 차씨는 김 전 실장과 10분가량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모임 성격을 “인사하는 자리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최씨와 김 전 실장 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드러냄과 함께 당시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으로 짐작해보면 인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아울러 차씨가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CC)에서 최순실씨,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정자(76) 삼남개발 회장과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사실이 라고 전했다. 기흥CC는 운영사인 삼남개발이 지난 50%를 가진 사실상 김 회장 소유의 골프장이다.

/연합뉴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 · 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해합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 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틀**

1개월 완성, 원장직강, 책임지도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 · 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 ~ 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